

# 한국문화교류 소식

34호 2019년 12월 15일 발행·발행인 위호인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16, 408호(도화동, 근신빌딩 신관)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 한국 전통 지붕 디자인에 나타난 조화

Harmony in Korean Traditional Roof Design



피터 게데 Dr. Peter-Juergen Gaede  
독일 물리학 박사, 철도운송 전문가

최근 나와 아내는 문화해설사와 함께 하는 ICKC 경희궁 탐방에 참가했다. ICKC의 비한국인 회원인 내게 이번 탐방은 무척 의미 깊었다. 비록 15년 이상 한국에서 살며 일하고 있지만, 독일인인 나는 여전히 한국 문화의 많은 측면을 이해하

기가 힘든 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탐방은 두 가지 점에서 도움이 되었다. 하나는, 탐방장소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유능한 해설사가 항상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ICKC 회원들과 탐방 내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점 때문에 나는 ICKC의 잘 계획된 문화탐방에 기쁘게 참석하고 있다.

궁전, 사찰이나 한국 마을과 같은 한국의 전통 건물을 방문할 때 항상 나를 매료시키는 것이 있다. 전통 가옥의 지붕 디자인이 그것이다. 지붕 꼭대기에서 아래쪽 끝까지 보면, 지붕 가장자리의 연결은 대부분 둥근 모양을 띠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구부러진 연결의 형태를 보인다.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지붕 가장자리를 일직선으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뇌는 황금비를 보여주는 디자인을 지닌 이미지를 선호하는 식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다.

고대 그리스 건축물에서도, 이탈리아 회화에서도 예술가와 건축가들은 의도적으로 황금비를 적용하였다.

더 쉽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럼에도 왜 그것을 둥근 형태로 만들었을까?

한국 전통 건물의 지붕을 올려다 볼 때마다, 나는 왠지 모르게 그 곡률(curvature)에 마음이 끌린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떤 조화(harmony)를 느끼곤 한다. 나는 한국의 건축가나 설계자가 한

국 전통 건축을 설계하고 지붕 가장자리의 둥근 모양을 만들 때, 이를테면 쌍곡선(hyperbola)이나 포물선(parabola) 등의 기하학적·수학적 규칙을 의식적으로 적용했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sectio aurea” (황금비/황금분할, golden section)라고 명명한 수학



적 규칙을 서양 문화권의 그림, 조각, 건축물들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 규칙은 이를테면 이러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백 명의 사람에게 종이 위에 직선을 그은 뒤에, 볼펜으로 직선 위에 한 점을 표시하게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표시는 직선을 긴 부분과 짧은 부분으로 나누게 될 텐데, 긴 부분과 짧은 부분 사이의 비율을 볼 때 일종의 아름다움/미학(aesthetics)이나 조화(harmony)를 느낄 수 있도록 점을 표시해야 한다고 또한 가정해 보자. 놀랍게도 백 명 중 대부분은 같은 위치를 표시할 것이고, 두 부분 사이의 비율이 바로 ‘황금비/황금분할’을 뜻한다. 그 뒤에 숨은 수학적 규칙은 다음과 같다. 선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 긴 부분을 짧은 부분으로 나눈 값이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의 합을 긴 부분으로 나눈 값과 같다면 우리는 황금비를 이뤘다고 한다. 긴 부분과 짧은

은 부분 사이의 비율은 1.6180339……라는 무리수(irrational number)로 귀결된다.

분명 우리 인간의 뇌는 황금비를 보여주는 디자인을 지닌 이미지를 선호하는 식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 고대 그리스 건축물에서도, 이탈리아 회화에서도 예술가와 건축가들은 의도적으로 황금비를 적용하였다. 그래서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한국 전통 건축 디자인이 보여주는 지붕 가장 자리의 곡선 형태 또한 이러한 일종의 수학적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아마도 ICKC의 친구들이 그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 번역\_ICKC 사무국



## 세계태권도연맹, 올해 ‘최고의 국제 경기연맹 상’ 수상



강석재

ICKC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이하 WT)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수여하는 올해 ‘최고의 국제 경기연맹 상’을 수상했다.

WT는 현지시간 11월 15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FISU 갈라 어워즈에서 ‘최고의 국제 경기연맹 상’을 받았다.

WT는 남녀평등과 혁신 및 동등한 기회에 중점을 둔 스포츠 개발을 FISU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올림픽 가치 실현을 위해 태권도박애재단을 통한 난민과 불우 청소년에게 태권도를 전파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WT는 이러한 다년간의 노력 및 대학 스포츠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조정원 총재에게 상을 전달하는 ▶  
에릭 생트롱 FISU 사무총장(왼쪽)



조정원 WT 총재 겸 ICKC 총재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 WT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이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 부여라는 목표를 FISU와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쁘다”며 “스포츠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게 FISU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의 최고 남자 선수에는 이란의 태권도 스타인 아르민 하디포(Armin Hadipour)가 수상해 태권도는 겹경사를 맞았다. 하디포는 지난 7월 열린 나폴리 하계 유니버시아드 금메달을 포함해 2017년과 2015년에도 우승을 차지해 3연패 기록을 달성했다.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에서 선택 종목으로 첫 선을 보인 태권도는 2017년 타이베이 유니버시아드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지난 나폴리 대회에서 태권도는 육상, 수영에 이어 세 번째로 메달을 많이 받는 종목이었다.



◀ 조정원 총재의 수상 소감

또한, WT와 FISU는 갈라 어워즈 직전 열린 FISU 총회에서 '스포츠평화봉사단' (Sport Peace Corps) 창설 관련 업무협약서에 체결했다. WT와 FISU는 태권도를 포함한 모든 스포츠가 참여하는 스포츠평화봉사단을 출범해 스포츠 활동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스포츠 기구로서 인류 사회에 대한 사회적 기여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FISU 갈라 어워즈는 매 2년마다 열리는 행사로 이번이 4회째이다. 역대 올해의 최고 국제경기연맹 상은 국제농구연맹, 국제스키연맹, 국제오리엔티어링연맹 등이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올해의 여자 선수상은 한국 쇼트트랙 김아랑이 수상하였다.



◀ 시상식 후 수상자들 기념 촬영. 왼쪽 두 번째부터 하디포 선수, 조정원 총재, FISU올레그 마티신 회장

## ‘까레이스키’에서 ‘한국스키’로



빈 일 숙

러시아 사라토프한글학교 교장

러시아는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이다. 한국 면적의 170.4배이다. 이 광활한 땅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남쪽으로 1,200km를 달리면 사라토프에 도착한다. 불가강 유역에 위치한 사라토프는 인구 약 100만 명의 중소도시에 속한다. 고려인이 많이 거주하는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다른 도시에 비해 고려인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온 가정은 한 가정 뿐이다. 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겠다는 신념으로 2015년 사라토프 한글학교를 설립했다.



## 나눔 1. 한국어를 통해 한국의 세계를 알다

고려인도 아닌 러시아인들이 왜 한국어를 배울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학생들은 말한다. “한국의 드라마와 K-POP을 한국어로 직접 보고 싶어요.”, “한국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냥 한국의 음식과 문화가 좋아요.” 등 다양한 이유에서 모인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한번 1시간 30분의 수업이 짧기는 하지만 한국에 대한 열정으로 한국어와 문화를 통해 한국의 세계를 알아가고 있다. 이 열정에 60세가 넘는 세 분의 학생도 같이 한다. 설날과 추석은 한국 고유명절로 떡국 먹기와 송편 만들기는 반드시 체험하고 한글날 행사를 통해 세종대왕의 마음을 알고 한글의 우수성을 배운다. 12월은 노래자랑으로 좋은 가사에 한국어 발음도 확인할 수 있는 행사와 내년 1월에는 ‘화폐를 통한 한국의 위인’ 역사 캠프를 준비 중이다.



## 나눔 2. 함께하는 한민족

사라토프에는 한국을 알리는 단체가 또 있다. 사라토프한글학교보다 1년 늦게 발족된 고려인과 현지인 중심의 한국문화센터 ‘동막골’(대표 김 안드레이)이다. 한국어와 문화 교육은 사라토프한글학교에서, 한국 문화 행사는 ‘동막골’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존중하고 협력하며 한국을 알리고 있다. 협력의 결과는 만 4년의 짧은 역사이지만 이번 학기 80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점점 늘어가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사라토프 한글학교에서는 중급반 학생들이 초급반 교사가 되어 가르침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성장 중이다.



한글학교 교사. 오른쪽 2번째 빈일숙 교장

## 나눔 3. 전통 결혼식

고려인들에게는 꼭 해야 되는 중요한 행사 3가지가 있다. 돌잔치, 결혼잔치, 환갑



잔치이다. 그런데 결혼잔치를 한 분만이 환갑잔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사라토프 한글학교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고려인 어르신들에게 권유를 했지만 많이 부끄러워하셨다. 그러던 중 한글학교 선생님의 결혼식을 전통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생겼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잔치음식을 나누며 신랑 신부의 화축을 밝혔다. 이 곳 사라토프 뉴스에서 보도가 될 정도로 의미있는 전통 결혼식을 사

라토프 한글학교는 계속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 나눔 4. 다민족 축제

러시아는 약 180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민족국가이다. 사라토프에는 러시아인이 인구의 약 80%로 가장 많고 카작스탄인, 우크라이나인, 타타르인, 독일인 등 다양한 소수민족이 모여 사라토프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 고려인도 포함이 되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일년에 한 번씩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작은 축제를 하는데 한글학교에서는 부채춤, 한국음식 등을 준비하였다. 이 축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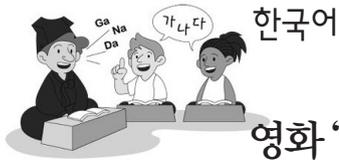


서 가장 인기 있는 민족은 우리 고려인이다.

#### 나눔 5. '까레이스키'에서 '한국스키'로

러시아어로 '까레이스키'는 '고려의'라는 뜻이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살다 보면 이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요즘 또 많이 듣는 말이 있다. 바로 '한국스키'이다.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지고 있다. 많은 고려인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고 러시아 사람들의 잦은 한국 방문으로 한국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자주 말한다. 지금 러시아에는 고려인들의 문화에서 한국의 문화로 변하고 있다.

사라토프한글학교는 까레이스키에서 한국스키를 넘어 한민족과 한동포로 만나는 그날을 위해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려고 80명의 학생들과 같이 눈이 많은 추운 겨울 사라토프 한글학교에 모여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영화 '말모이' 실제 주인공 이극로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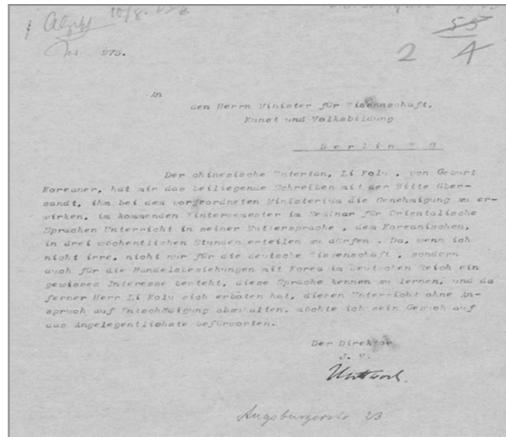
## 96년 전 독일 훔볼트대에 한국어강좌 개설

영화 '말모이'의 주인공 류정환(윤계상 분)의 실존 모델로 알려진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고루 이극로(1893~1978) 선생이 1923년 독일 훔볼트대학(Humboldt University of Berlin)에서 한국어강좌를 개설했다는 독일 정부의 공식 문서 등의 관련기록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이극로 선생이 독일 유학 중이던 1923년 유럽 최초로 프리드리히 빌헬름대학(현재는 훔볼트대)에 개설한 한국어강좌 관련 독일 당국의 공문서와 자필서신 등을 수집했으며, 번역 등의 과정을 거쳐 일반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10월 7일 밝혔다.

이극로의 어문학적 업적을 연구해 온 차민기 박사(경희대)는 “그가 수학한 훔볼트대는 언어학을 기반으로 설립된 대학이어서 언어를 민족구성의 중요 요소로 여겼다”면서 “이런 학풍의 영향으로 언어에는 민족의식이 담겨있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또한 한국어 강의경험 역시, 민족운동으로서의 어문운동에 투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현수 기자, 2019/10/07



과학예술포육부 장관님 귀하  
배출일

이극로(출생: 한국, 국적: 중국)는 첨부한 동봉된 서신과 함께 다음 겨울 학기 동안에 세미나에서 주 3회 그의 모국어인 한국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허가를 얻어낼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제 정보가 맞는다면 한국어는 독일의 학문뿐 아니라, 독일의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이익이 되고, 이극로가 부보수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하였으므로 그의 제안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관리자

H. W. H.

▲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관련 기록물 및 주요 내용 번역 내용



## ‘태권도 전파 반세기’ 멕시코서 울려 퍼진 태권 함성

태권도 전파 50주년을 맞은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도심에서 우렁찬 태권 함성이 울려 퍼졌다. 주멕시코 한국문화원은 11월 10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삼문화광장에서 국기원 시범단을 초청해 품새와 격파 등 시범 공연을 펼쳤다.

멕시코 태권도협회와 함께 연 이번 시범은 멕시코 체육계 인사들과 태권도인, 현지 교민들은 물론 휴일을 맞아 광장을 찾은 멕시코시티 시민 등 많은 사람이 관람했다. 관객들은 시범단의 절도 있는 동작과 현란한 격파 시범에 큰 환호를 보냈다.

멕시코에는 1969년 처음으로 태권도가 전파됐다. 현재는 등록 도장이 3천여 개, 태권도 인구는 300만 명에 각각 달한다고 문화원은 설명했다. 멕시코는 2008년 중국 베이징올림픽에서 최초로 태권도 금메달 두 개를 거머쥐기도 했다.

김상일 주멕시코 대사는 태권도가 한국과 멕시코 간 스포츠 교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 협력 강화의 교두보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다.

[기사전문 출처] (멕시코시티) 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2019/11/11



▲ 현지 태권도인들과 함께 한 멕시코시티 국기원 시범단 공연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 9월 문화탐방 실시 - 청계천 일대

지난 9월 19일(목), 9월 문화탐방으로 '청계천' 일대를 탐방하였다. 회원들은 해설사와 함께 청계천문화관, 판잣집테마존, 고산자교 등 광화문 근처의 잘 알려진 익숙한 청계천변이 아니라 신설동 일대의 청계천을 함께 걷고 답사했다. 특히 청계천문화관은 청계천의 역사와 과거 모습, 그 곳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전시하고 있어서 더욱 뜻 깊었다. 마지막으로 서울풍물시장에 들러 추억이 가득한 여러 가지 물품, 생활용품 등을 둘러보며 옛 추억에 젖어보는 시간 또한 나누며 탐방을 마쳤다.



### ■ ICKC, 세계태권도연맹 및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로부터 감사패 수여

지난 10월 4일(금) 세계태권도연맹 회의실에서 본회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의 감사패 수여식이 열렸다. 이번 감사패 수여식은 캄보디아, 네팔 등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등 국제 태권도 교류에 이바지한 본회의 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마련된 자리로서, 세계태권도연맹(WT) 및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GCS International)의 조정원 총재가 본회 대표 자격으로 참가한 위호인 이사장에게 수여했다. 본 수여식에는 조정원 총재, 위호인 이사장을 비롯해 (재)아시아발전재단(ADF)의 김준일 이사장 및 조남철 상임이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이 참석하였고 아시아발전재단 또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참석자들은 이번 감사패 수여식을 계기로 한층 발전된 상호 업무 협약을 통해 태권도 발전 및 국제교류에 이바지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는 위호인 ICKC 이사장(右)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 10월 문화탐방 실시 - 창덕궁 및 후원

지난 10월 17일(목), 10월 문화탐방으로 창덕궁 및 일명 '비원(Secret Garden)'으로도 알려진 창덕궁 후원을 탐방하였다. 해설사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창덕궁의 여러 장소를 돌아보고, 이어서 후원으로 들어섰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창덕궁 후원은 명성대로 무척 아름다웠다. 환경 및 유적 보존을 위해 예약제로 일일 관람객 방문을 제한할 만큼 후원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후원은 여러 아름다운 정원, 영조와 정조가 직접 쓴 현판 등 조선시대 여러 왕들의 자취, 옥류천 등 쉽게 볼 수 없는 비경으로 가득했다.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음미하며, 이러한 소중한 유산이 후세를 위해서도 잘 보존되기를 바라며, 올해의 마지막 탐방이기도 한 창덕궁 문화탐방을 마쳤다.



### 2019년 후원하여 주신 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시는 관심과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성구, 강석재, 강영광, 강영실, 강재근, 구병진, 김건길, 김명수, 김복음, 김성열, 김소진,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종근, 김진원, 김호일, 김홍석, 노승락, 류성식, 문영호, 박경명, 박기연, 박관용, 박미화, 박원출, 박의근, 배대환, 성호동, 손희정, 심의표, 양경옥, 유영찬, 유자효, 윤문원, 윤윤식, 이병욱, 이상철, 이석복, 이석종, 이성호, 이영섭, 이용선, 이창걸, 이향구, 이헌목, 이효정, 장정용, 장호익, 전영섭, 정상설, 정순영, 정영숙, 정진화, 정현관, 조두연, 조준연, 추호석, 최준이, 표재순, 하 전, 허원준, 홍계화, 황경애,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재)아시아발전재단, (주)포스젯한도, (주)P&H

(가나다순, 2019년 1월 1일 ~ 2019년 11월 30일까지)

총액 : 39,790,000원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3.30. 창립총회 개최  
2011.08.16. 사단법인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29호)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6.03.30. 총회 및 창립 5주년 포럼 개최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2019.03.29. 총회 및 창립 8주년 포럼 개최

**조직 구성**

**고 문** 강성구 前 MBC 사장  
김길남 국제한민족연구재단 대표  
김용구 (주)산동 회장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관용 前 국회의장, NDI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최불암 예술인

**총 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 사 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이 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송중국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운영위원** 윤문원 작가, 인성교육 전문가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회장  
장정용 (사)한국이집트발전협회 수석부회장

**감 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100%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인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손금산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내악단 이병욱과 어울림이 함께하는

# 2019 어울사랑 송년음악회



이병욱  
새원대학교 명예교수



이지연  
KBS 아나운서



이재환  
바리톤, 중앙대 교수



이희문과 농농



어울사랑 예술단



어울사랑 기타반



아미치합창단



실내악단 이병욱과 어울림

일시 :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과천시민회관대극장 (정부 과천청사역 9번출구/ 02-500-1214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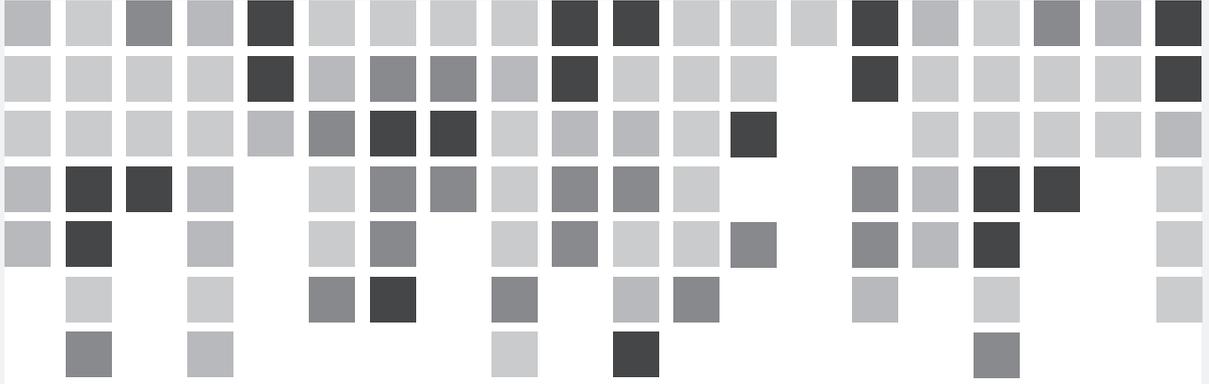
주최·주관 : (사)마리소리음악연구원,

후원 :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문화유산국민신탁, 수당기념관

협찬 : 어울사랑 마스트바이오, 나루다이텍, ㈜편안택시, 교보생명대성지점, 바이오센글로벌,  
(주)우수상민, 건양치과, 정우물산, 골드클럽여행사, 실바월드오디오연구소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의처 : 010-6790-4025



# 아시아발전재단

Asia Development Foundation



**더불어 함께 가는 아시아**



**교류와 협력 · 나눔과 상생**

전 세계 인구 60% 이상이 살고 있는 아시아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땅입니다.  
재단법인 아시아발전재단은 다시 아시아로! 라는 기치 아래 아시아 각국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 시키는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과의 교류 확대 및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DF**

Asia Development  
Foundation